



제 2021-042호

## 미국 무역대표부(USTR), 지적권 감시대상서 ‘필리핀’ 8년 연속 제외

영화권 직캠 방지법 마련 및 집행 부문 우수, 위조 의약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근절은 미흡  
마닐라사무소

### ■ 스페셜 301조 보고서 개요

- 지난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이하 USTR) ‘2021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21 Special 301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공개, 필리핀을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목록에서 8년 연속 제외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검토해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상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 등으로 평가하여, 협상 개시 또는 무역 보복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미국 통상법 182조)
- 올해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되었으며, 태국, 베트남,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 23개국이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

### ■ 필리핀 관련 주요 내용

- 필리핀은 1989년에 처음으로 ‘스페셜 301조 보고서’의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으며, 1994년 이후로 ‘우선감시대상국(PWL)’과 ‘감시대상국(WL)’에 지속해서 지정되었으나 2014년 이후 8년 연속 보고서에서 제외됨.
- 직캠 방지법 운영 및 집행에 매우 적극적, 위조 의약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 근절 노력 강화 필요
  -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수준을 검토해 매년 4월 말에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상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PFC),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 등으로 평가하여, 협상 개시 또는 무역 보복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미국 통상법 182조)
  - 필리핀 정부 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근절 필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필리핀과 더불어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파키스탄이 위조 의약품 유통의 주요 경로임을 밝힘.
  -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절차(속도) 개선 필요



## ■ 필리핀 정부 반응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이 미국을 포함한 외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지식재산권 적극 보호 국가로 홍보할 수 있게 된 이번 보고서 결과에 만족한다 밝힘.
- 필리핀은 90년 말부터 국가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
  - 필리핀 정부는 정부 기관들의 합법 소프트웨어 의무사용을 위해 '정부조달 개혁법, 행정명령 262호(2000), 각서 회람 115호(1995)' 등의 정책 시행을 통하여 불법 및 비표준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NCIPR)를 구성, 지재권 침해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도 부처·기관간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 국가 지식재산권위원회

#### (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NCIPR)

국가 지식재산보호 및 산업활성화의 계획과 보호활동 및 집행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특별기구로 필리핀 통상산업부, 지식재산청, 법무부, 세관, 식약청, 경찰청, 국가 수사국, 광매체위원회, 국가 도서발전 위원회, 정보통신부, 다국적 범죄 특별 수사국, 내무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대표자 12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이 의장, 지식재산청장이 부의장을 맡음.

- 필리핀 지식재산청(IPO) 테오도로 파스쿠아 부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USTR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제정 또는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특히 위조 의약품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식약청과 세관 등과 공조해 위조 의약품이 수입·유통되는 것에 적극 대응 예정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도 다른 지재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

## ■ 출처

- USTR 웹사이트
  -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files/reports/2021/2021%20Special%20301%20Report%20(final).pdf)





- 필리핀 국가 통신사 기사  
- <https://www.pna.gov.ph/articles/1138797>
- 마닐라볼레틴 기사  
- <https://mb.com.ph/2021/05/03/ipophl-to-run-after-online-counterfeits/>
- 필리핀 지식재산청 웹사이트 공보자료  
- <https://www.ipophil.gov.ph/news/ph-keeps-out-of-special-301-watch-list-for-eight-years-clears-unlicensed-software-use-allegation/>

■ **참고사항**

- 2021년 스페셜 301조 감시대상국 명단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태국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파키스탄 캐나다 쿠웨이트 레바논 루마니아 터키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볼리비아 브라질 알제리(완화)
<b>9개국</b>	<b>23개국</b>	

※ 2020년 스페셜 감시대상국에 포함됐던 아랍에미리트(UAE) 제외